

### 반상위의 열전...광양시 '후끈'

광양시 바둑협회장배  
최강부 김영준씨 우승

제 2회 광양시 바둑협회장배 바둑대회가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동호인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최강부와 일반부(갑조, 을조, 병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문가 2명을 초청, 지도 다면기도 펼쳐졌다. 이번 대회 최강부에서는 김영

준씨가 우승을 차지해 아마 5단을 인정받았고 일반부 갑조는 김영관, 을조 김종길, 병조 송옥섭씨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광양시바둑협회 허춘언 회장은 "지난해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바둑 인구의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이것이 명품 바둑판"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화랑에서 공예가 김종환씨가 세계적 희귀종인 현목으로 제작한 바둑판을 전시해 바둑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목은 호주 남쪽 타스매니아 섬에 분포하며 수천년을 사는 세계적 희귀목이다. 전시된 바둑판은 1천~2천500년 된 현목으로 만들었으며 가격은 1억~2억5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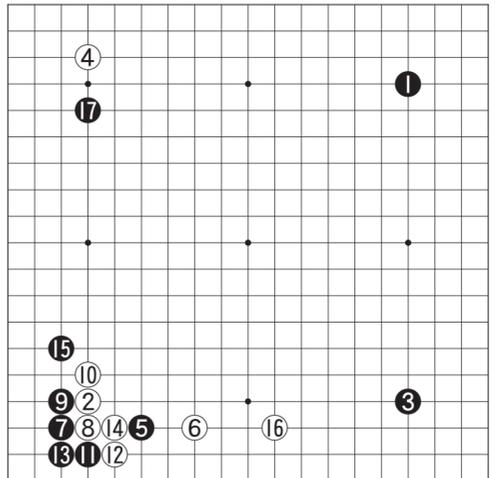
### 제15회 光日盃

수훈선수 등장

개인전 준준결승 제2국 1보(1~17)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박명수 5단 <농협>



이 판은 단체전 참가자 중에서 성적 상위 6강이 겨루는 토너먼트 준준결승의 또 다른 한판으로 작은 조 대결이다. 선수들은 '새끼 조'라고 부른다. 바로 준결승에 올라있는 2명에 비하면 한판을 더 뛰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불운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길수만 있다면 시합에서의 한판은 어떤 공부보다 귀중한 경험이며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실력이 느는 데는 실전만한 공부 없는 것이다. 두대국자는 단체전에서도 맹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지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박명수 5단은 전년도 개인전 준우승자로 이미 명성이 자자한 고수다. 한편 유병수 5단은 첫 출전인데

도 불구하고 단체전에서 4연승을 기록, '포스코'의 우승에 결정적인 수훈을 세우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박5단이나 유 5단이나 서로 제대로 적수를 만난 셈이다. 고수와 신예의 대결은 심리적으로 고수가 더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고수는 알려진 반면 신예는 숨겨진 무공을 쓸 수가 있다. 흑 1, 3의 양 화점은 두터워야 힘을 내는 박 5단 특유의 포진이다. 유 5단은 소목과 화점으로 대항한다. 흑 15까지의 유행 정석 이후 백 16은 이창호 9단의 애용수법이다. 느린 듯 하지만 두터워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17로 걸쳐 포석의 기로를 맞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이다혜 여류명인 패권 '정조준'



강호 조혜연·박지는 누르고  
패자조 부활-생애 첫 도전권 획득

신에 이다혜 3단이 여류 바둑계에 각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제8기 여류명인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패자조로 추락, 도전권 후보군에서 멀어졌던 이다혜 3단이 다시 여류명인전 패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3단이 최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8기 여류명인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강호 박지는 6단을 맞아 224수 만에 백으로 불계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이다혜 3단은 지난

2000년 입단 후 생애 최초 도전권을 움켜쥐는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그는 국내 여류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는 강호 조혜연 7단과 박지는 6단을 연거푸 꺾는 기염을 토했다. 본선 1회전에서 조혜연 7단에 게 고배를 들었던 이다혜 3단은 이후 패자조에서 다시 만난 조혜연에게 5연패 뒤 생애 첫 승을 거뒀다. 이어 도전자 결정전에서 만난 박지는 6단에게는 3연패 뒤 첫승을 낙착했다. 조혜연, 박지를 생애 처음으로 꺾고 도전권을 움켜쥐고 이다혜 3단은 여류명인 루이니아웨이 9단과 패권을 놓고 3번기를 갖는다. 여류명인전은 8인의 패자부활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전기 대회에는 루이니아웨이 9단이 조혜연 7단을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잘했어, 우승까지 쭈~욱 가는거야"

LG배 기왕전, 조한승 천야오에 꺾고 4강 안착  
홍민표도 구리 꺾고 4강 올라 최대 이번 연출

세계 최강 기사들이 줄줄이 포진한 '인의 장막'을 뚫고 LG배 준결승에 진출한 홍민표(사진 오른쪽)와 조한승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LG배에서 파란의 주인공은 단연 홍민표 5단. 홍민표는 최근 제11회 LG배 세계기왕전 8강전에서 전기대회 우승자 구리 9단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 세계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국내 랭킹 26위인 홍 5단은 중국 랭킹 1위 구리 9단과의 대국에서 우상구 대마가 몰살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한 뒤 신에답지 않은 활약 같은 마무리 솜씨를 발휘하며 구리 9단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 그로서는 지난해 삼성화재배 32강전에서 패배의 쓰라림을 안겨준 구리 9단에게 아픔을 되돌려주는 통쾌한 설욕전이었다. 지난 1984년 경기 부천 태생인 홍 5단은 입단의 명가 김원 도장 출신으로 각종 기전 본선과 한국바둑리그 등에서 활약해 왔으나 아직까지 우승 경력이 없는 신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는 중국의 저우허양에 이어 대만의 린즈한을 꺾고 예선부터 현재까지 8연승 행진을 하고 있다. LG배 '단골손님' 조한승 9단은 이번 대회까지 무려 4차례나 준결승 무대를 밟아왔다. 조한승 9단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중국 천야오에 5단을 상대로 253수 만에 백으로 6집 반승, 한국의 첫 4강 주자가 됐다. 홍민표 5단-대만의 저우권현 9단, 중국 후야오위 8단-조한승 9단이 격돌하는 준결승전은 내년 1월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안내  
영화가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연역국사거리 ☎02-1544-0800

엔터시네마  
총장로 57가 228-2700

콜롬버스시네마  
해남점 상무점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10년전통!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대) 525-0021, 전접상담 011-612-3421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대지  
매도가 협의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내 집을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총장로 대지 50평 4층건물 26억  
\*총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LC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AAA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현대공인중개사  
금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급히 구합니다  
[건물]  
\*병원건물이야 병원으로 임대 가능 건물 현금 5억